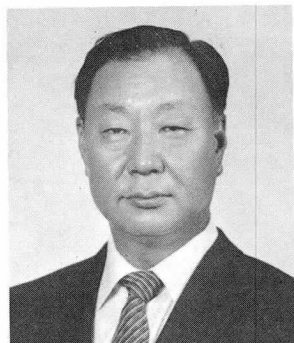


첨단의 防災研究 試驗所 육성위해 힘을 모으자



이 상 규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화보험회는 지난 '86회계연도(86.4~87.3말까지)에도 특수건물과 기간산업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험관리업무를 비롯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업무,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한 계몽, 홍보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선진형 위험관리기반을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 결과 3만여건의 특수건물 가운데 작년도에는 화재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특수건물이 5백36건으로 비록 44억 1천 1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음이나 손해율은 12.5%로서 84년도의 31.4%, 85년도의 31.6%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 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폭넓게 전개해온 방재활동에도 힘입은 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협회는 지난 4월 11일로 부설 방재시험소의 개소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4년여동안 축적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수준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최신설비를 갖춘 방재시험소는 그동안 소화기를 비롯 경보설비, 방내화, 스프링클러 시험등 1백여개 항목에 걸쳐 모두 85건의 방화제품에 대해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국내방화제품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험업무 규정제정 및 방화정보회원제 운영등 방재시험소의 기초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데도 주력하는 한편 지난 8월에는 2억원을 투자, 보·바다 가열로를 준공하는 등 부족한 시설을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이 시험소가 KS 등 국내 기준은 물론 UL 등 국제규격의 모든 인증업무까지 종합처리할 수 있도록 첨단의 방재연구시험소로 육성해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7월중순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셀마를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계속된 태풍 및 집중호우는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의 재해를 당하여 저희 협회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 건물에 대해 풍수재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해드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풍수재로 인한 특수건물의 피해규모는 총 8백여건에 약 1백20억원정도의 손해배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4백건에 대해선 16억 3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그나마 지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가지급하는등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건물 소유주 여러분들에게 협회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됩니다. 아무쪼록 화재예방에도 모두가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새삼 당부드리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하시는 일 모든 분야가 더욱 더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